



선두권과 6연전 돌입…KIA, 순위 반등 이뤄낼까

4~6일 광주 KT전…7~9일 잠실 LG전 주간 타율 5위·ERA 9위…선발 회복 과제

KIA타이거즈가 상위권 팀들과의 6연전을 앞두고 순위 반등에 도전한다.

KIA는 지난주 주중 삼성라이온즈에게 위닝시리즈를 따낸 뒤 주말 NC다이노스에게 1패(2경기 폭염 취소)를 당했다. 그 결과 52승 2무 4패로 승률 0.531를 기록하며 승패마진은 +6을 유지했고, 순위는 5위로 한 계단 내려앉았다.

순위 경쟁은 여전히 치열하다. 3위 LG

와는 2.5게임 차, 4위 두산베어스와의 불과 0.5게임 차다. 6위 한화이글스와의 격차는 4.5게임으로 아직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번 주에는 리그 1위 KT와 광주 홈 3연전을 치른 뒤 잠실로 이동해 LG와 맞붙는다. 상위권 팀과의 경기인 만큼, 이번 경기에서 좋은 결과를 만들어야 상위권 추격의 불씨를 살릴 수 있다.

다행히 타선의 흐름은 나쁘지 않다. KIA는 지난주 팀 타율 0.305로 리그 5위에 올랐고, 홈런도 7개를 터뜨리며 장타력을 과시했다.

키스트로는 지난주 4경기 14타수 7안타 2홈런 5타점 타율 0.500으로 중심타선을 이끌었다. 주장 나성범도 4경기 15타수 7안타 1홈런 1타점 타율 0.467을 기록했고, 김선빈 역시 3경기 11타수 5안타 2타점 타율 0.455로 꾸준한 활약을 이어갔다.

이적생 하주석도 4경기 14타수 5안타 4타점 타율 0.357을 기록하며 공격에서 존재감을 보였다. 수비에서는 다소 아쉬움을 남겼지만 즉시전력감으로서 기대에 부응

했다.

김도영도 4경기 15타수 5안타 3홈런 5타점 타율 0.333으로 해결사 역할을 했다. 시즌 성적은 100경기 370타수 111안타 33홈런 86타점 83득점 타율 0.300. 현재의 타격감을 이어간다면 2년 만의 3할-30홈런-100타점-100득점 달성도 충분히 노려볼 만하다.

문제는 마운드가. KIA의 지난주 팀 평균자책점은 7.15로 리그 9위에 머물렀다. 선발진이 긴 이닝을 소화하지 못하면서 불펜 부담이 커졌고, 결국 경기를 뒤집지 못했다. 특히 올리가 삼성전에서 1이닝 8실점, 양현종이 NC전에서 1.1이닝 8실점으

로 크게 흔들리며 선발진이 무너졌다. 반면 시라카와는 5이닝 1실점으로 반등 가능성을 보여줬고, 네일도 6이닝 3실점으로 제 몫을 다하며 희망을 남겼다.

결국 이번 6연전의 성패는 선발진에 달려 있다. 선발투수들이 최소 5~6이닝 이상을 책임지며 불펜 부담을 줄여야 한다. KIA는 이런 흐름 속에서 주중 KT와 3연전을 치른다. KT는 현재 59승 2무 36패 승률 0.621로 리그 1위에 자리하고 있다. 팀 타율(0.283)과 평균자책점(4.43) 모두 KIA(0.271·4.49)를 앞서고 있다. 올 시즌 상대 전적 역시 KIA가 3승 6패로 밀리고 있다.

광주-기아챔피언스필드에서 만날 KT는 4일 오원석을 선발로 내보낼 예정이다. 이에 KIA는 올리를 선발로 투입한다.

KT와의 일정을 마친 KIA는 주말 잠실로 이동해 LG와 맞붙는다. LG는 팀 타율 6위(0.270), 평균자책점 8위(4.84)로 부침을 겪고 있다. 최근 10경기 흐름도 3승 6패 1무로 분위기가 가라앉았다. 다만 올 시즌 상대 전적에서는 KIA가 4승 7패로 밀리고 있어 설욕이 필요하다.

KIA가 이번 주 투타 분위기를 회복하며 순위 반등의 발판을 마련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송하중 기자 hajong2@gwangnam.co.kr

‘대역전극’ 이다연, KLPGA 통산 10승 금자탑

오로라월드 챔피언십 이글·버디쇼로 김수지 제치고 정상

이다연이 폭염 속에서도 끝까지 집중력을 잃지 않으며 극적인 역전 우승을 완성했다.

이다연은 지난 2일 강원도 원주시 오로라 골프&리조트(파72)에서 열린 한국여자프로골프(KLPGA) 투어 오로라월드 챔피언십(총상금 10억원) 최종 4라운드에서 이글 1개와 버디 4개, 트리플보기 1개를 묶어 3언더파 69타를 기록했다. 최종 합계 12언더파 276타를 적어낸 이다연은 김수지(11언더파 277타)를 한 타 차로 따돌리고 우승 트로피를 들어 올렸다.

지난해 9월 하나금융그룹 챔피언십 이후 약 11개월 만에 정상에 선 이다연은 개인 통산 10번째 우승을 달성하며 KLPGA 투어 역대 17번째 10승 고지에 이름을 올렸다. 올 시즌 준우승 두 차례와 3위 한 차례를 기록하고도 우승과 인연을 맺지 못했던 아쉬움도 함께 털어냈다. 경기 초반은 순탄치 않았다. 3번 홀에서 버디 퍼트를 성공시키며 기분 좋게

출발했지만 5번 홀에서 트리플보기를 범하며 한때 우승 경쟁에서 밀려나는 듯했다.

하지만 이다연은 곧바로 반격에 나섰다. 9번 홀에서 짜릿한 샷 이글을 성공시키며 분위기를 단숨에 바꿨다.

이후 10번 홀부터 14번 홀까지 침착하게 파를 지켜낸 이다연은 승부처에서 힘을 냈다. 15번 홀 버디로 추격의 발판을 마련했고, 17번 홀에서도 버디를 추가하며 선두 김수지를 한 타 차까지 압박했다.

운명을 가른 것은 마지막 18번 홀이었다. 이다연은 침착하게 버디 퍼트를 성공했다. 반면 김수지는 버디 퍼트와 이어진 파 퍼트까지 놓치면서 순위가 뒤집혔고, 결국 이다연이 극적인 역전 우승의 주인공이 됐다.

이번 우승으로 이다연은 대상 포인트 70점과 우승 상금 1억8000만원을 획득했다. 대상 포인트 순위는 7위에서 4위, 상금 순위는 9위에서 5위로 끌어올리며



지난 2일 강원도 원주시 오로라 골프&리조트(파72)에서 열린 한국여자프로골프(KLPGA) 투어 오로라월드 챔피언십에서 우승을 차지한 이다연이 트로피를 들고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KLPGA

후반기 경쟁에도 탄력을 받게 됐다.

2015년 프로에 데뷔한 이다연은 발목 골절과 손목 인대 파열, 교통사고로 인하여 부상 등 숱한 시련을 겪었지만 이번이 재기에 성공하며 ‘오독이’라는 별명을 얻었다. 올 시즌에도 출전한 12

개 대회에서 모두 컷을 통과하고 톱10에 다섯 차례 오르는 꾸준한 활약을 펼쳤지만 우승 문턱을 넘지 못했다. 그러나 이번 대회에서 극적인 역전극을 연출하며 오랜 기다림에 마침표를 찍었다.

송하중 기자 hajong2@gwangnam.co.kr

이정후, MLB 코리안 더비서 2안타로 다시 3할

이정후(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가 송성문(샌디에이고 파드리스)과 벌인 미국 프로야구 메이저리그(MLB) ‘코리안 더비’에서 시즌 33번째 멀티 히트(한 경기 안타 2개 이상)를 치고 타율 3할에 복귀했다.

3일(한국시간) 미국 캘리포니아주 샌디에이고 팻파르크에서 벌어진 두 팀의 경기에서 이정후는 5번 타자 우익수로, 송성문은 9번 타자 3루수로 나란히 선발 출전했다.

이정후는 3타수 2안타에 몸 맞는 공으로 세 번 출루했고, 송성문은 4타수 무안타로 침묵했다. 이정후의 시즌 타율은 0.301로 약간 올랐으며 송성문의 타율은 0.204로 떨어졌다. 샌디에이고가 5-4로 승리해 3연승을 달렸다.

이정후는 2회 2루수 내야 안타로 간간 뒤 곧바로 2루를 홈쳐 시즌 7번째 도루를 기록했다. 그러나 후속타 불발로 홈에 이르지 못했다.

이정후는 0-4로 끌려가던 4회 1사 1.2루에서는 투수의 공에 맞아 걸어 나갔다. 샌프란시스코는 만루에서 2점을 만회했다. 6회에는 유격수 뜬공으로 잡힌 이정후는 4-5로 따라붙은 8회 투아웃 후 좌익수 앞 2루타를 치고서 좌익수의 송구 실책 때 3루에 안착했다. 수비 시프트로 3루 선상을 비운 송성문의 옆으로 타구를 밀어 시즌 25번째 2루타를 쳤다.

하지만 월리 아다메스가 삼진으로 돌아서 이정후의 노력은 또 허사가 됐다.

송성문은 2회와 6회 삼진, 4회 3루수 파울 플라이, 8회 2루수 뜬공으로 타격을 마쳤다.

연합뉴스

유해란, AIG 여자오픈 6위·‘메이저 3연승’ 불발

우승은 구와키…안니카 메이저 어워드는 코르다 차지

유해란의 여자 골프 메이저 대회 3개 연속 우승 도전이 끝내 불발됐다.

유해란은 2일(한국시간) 영국 잉글랜드 랭커셔주 리덤 세인트 앤스의 로열 리덤 앤드 세인트 앤스 골프 링크스(파71)에서 열린 시즌 마지막 5번째 메이저 대회 AIG 여자오픈(총상금 1000만달러) 최종 4라운드에서 버디 3개와 보기 4개, 더블보기 하나를 묶어 3오버파 74타를 쳤다. 최종 합계 1언더파 283타를 기록한 유해란은 공동 6위로 대회를 마쳤다.

우승자 구와키 시호(일본·5언더파 279타)와는 4타 차였다.

세계랭킹 3위인 유해란은 6월 말 메이저 대회 KPMG 여자 PGA 챔피언십과 시

즌 4번째 메이저 대회 아문디 에비앙 챔피언십에서 연이어 우승을 차지하며 상승세 속에 이번 대회에서 ‘메이저 3연승’에 도전했다. 하지만 3라운드부터 부진하며 결국 우승에 닿지 못했다.

유해란은 한 시즌 메이저 대회 성적이 가장 좋은 선수에게 주어지는 안니카 메이저 어워드 경쟁에서도 포인트 130점을 기록, 이번 대회를 공동 4위(2언더파 282타)로 마친 벨리 코르다(미국·140점)에게 내졌다.

유해란과 코르다는 막판까지 안니카 메이저 어워드를 다했으나 마지막 대회에서 간발의 차로 코르다가 주인공이 됐다.

연합뉴스

청문회에서 부적절한 언행 문진희 심판위원장 사임

축구협회 사임 제출…심판위원회는 부위원장 대행 체제 운영

대한축구협회 국회 청문회에서 한 손을 바지 주머니에 넣은 채 답변하는 등 부적절한 모습을 보인 문진희 대한축구협회 심판위원장이 사임했다.

축구협회는 3일 언론 공지를 통해 “문

진희 심판위원장이 일신상의 사유로 사임서를 제출했다. 정관에 따라 임원의 경우 사임서 제출과 함께 효력이 발생한다”라며 “향후 심판위원회는 새 집행부가 출범할 때까지 부위원장 대행 체제로 운영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문 위원장은 축구협회에 사임 의사를 표명했고, 애초 화요일 예정된 심판 평가협의체 회의 일정을 하루 앞당겨 치른 뒤 사임서를 제출했다.

문 위원장은 지난달 30일 국회에서 열린 대한축구협회에 대한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청문회에서 조국혁신당 김재

원 의원과 언쟁을 벌였다.

김 의원이 “자세 똑바로 하시라. 공손하게 대답하시라. 아까부터 다른 위원님 답변도…”라고 지적하자 문 위원장은 한 손을 바지 주머니에 꽂은 채 “위원님은 말씀하고 나는 하지 말란 말이나. 목소리를 좀 다운시키시라 그러면”이라고 맞받아쳤다. 이어 더불어민주당 조계원 의원도 문 위원장의 부적절한 언행에 이의를 제기하자 문 위원장은 “거기는 끼지 마시고”라며 격앙된 태도를 보이며 청문회에 참석한 국회의원들의 공분을 샀다.

연합뉴스